

지난 1년간 연재해 온 「내부자의 시선」을 마치고 이번 3월호부터 「윤세영이 만난 사람」을 연재한다. 이번에는 화제로 떠오르는 사진가뿐 아니라 사진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인물들을 폭넓게 인터뷰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박찬호

박찬호(1971~), 그가 사진계에
정식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지는
불과 10년이다. 그런데 그 10년이
눈부시다. 눈물겨운 삶을 눈부신 성취로
바꾼 힘은 살아오면서 품어온 질문의
답을 사진으로 구했고 마침내 사진에서
답을 찾았기 때문일 것이다. 곧 그의
작업이 그의 삶 자체여서 그로 인한
진정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2024년 가을부터 올봄까지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의미 있는 전시에
참여 중인 박찬호 작가를 만났다.

글 윤세영 편집주간



사진으로 인생의 답을 구하다



◁ 박찬호 작가

△ 이탈리아 토리노 동양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달에 사는 토끼》에서 박찬호 작가의 작품이 걸려 있는 방. 동영상과 함께 김금화 만신의 사진이 대형 프리트로 전시 중이다.



◁ 박찬호 다큐멘터리 영상 <Shrine> 상영회 및 오프닝 행사(MAO Davide 관장)
▽ MAO에서는 백남준 선생과 그에게 영향을 받은 예술가들의 작품이 대규모로 전시 중이다.
▽▽ 박찬호 작가의 <신당> 전시 전경
▽▽▽ 토리노 동양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박찬호 작가의 <신당> 시리즈 중 충남 내포얏은곳 보유자 조부원 박수.



사진무당 박찬호

故 김금화 만신은 젊은 무당들 앞에서 박찬호 작가를 ‘사진 무당’이라고 부르곤 했다. ‘너희들, 웬만해서는 박 작가 못 쫓아간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얼마나 오랫동안 고향에 뛰어들어 진지하게 작업했으면 만신의 눈에 그렇게 보였을까? 그동안 만신 300명은 만났을 것이라고 말하는 작가는 그러다 보니 “만신은 영을 보는 눈이 생긴다지만 나에게게는 만신을 보는 눈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다. 그러니 김금화 만신의 평가도 과장이 아니다.

또한,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인 故 백남준 선생은 “모든 아티스트는 무당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니까.”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김금화 만신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촬영하는 박찬호 작가를 ‘사진 무당’이라고 부른 것은 참 절묘하다. 현재 한국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이탈리아 토리노 동양미술관 (Museo d'Arte Orientale, MAO)에서 열리고 있는 기획전 《달에 사는 토끼》(2024.10.19.~2025.3.23.)에서 박찬호 작가가 백남준 선생과 함께 전시 중인 것 역시 우연이 아닌 듯 흥미롭다. 마치 고수들끼리 서로 영적으로 연결된 느낌이 들어선다.

《달에 사는 토끼》는 백남준과 그의 영향을 받은 한



전시 오프닝 때 우리의 농악을 공연하고 있다.

국 현대 예술가들의 전시로 구성되었는데, 박찬호 작가는 전시장의 가운데 위치한 방에서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디지털 영상을 통해 보여주는 신당 사진 35점 외에 프린트로 보여주는 두 점의 인물사진은 김금화 만신과 조부원 박수(충남 무형문화재 내포얏은곳 보유자)다. 쏘아보는 눈빛과 옅은 미소를 띤 김금화 만신의 사진은 방에 들어온 관람객을 압도한다. 한국의 만신들이 이국땅에서도 신묘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걸까? 이 전시는 토리노 동양미술관에서 전시가 열린 이래 가장 많은 관람객을 불러들이며 한국 샤머니즘의 신력(神力)을 과시하는 중이라고 하니 말이다.

삶과 죽음, 죽음과 삶

박찬호 작가가 처음부터 사진가가 될 꿈을 품은 것은 아니다. 심지어 지금도 사진가라고 불리는 게 쑥스럽다고 말한다. 사진을 전공하지 않은 데다 그냥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돌파구가 필요하던 참에 현실 회피로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돌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사진을 시작하여 십수 년을 일관되게 ‘죽음’이란 주제에 천착한 배경에는 개인적인 서사가 있다.

그는 11살 어린 나이에 암 병동에서 어머니를 간

호하면서 3년 동안 술한 죽음을 목격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면 고통에 비명을 지르던 암 환자의 병상이 비었고 그 빈 침대가 새로운 환자로 채워지는 과정을 두려움으로 지켜보던 그는 14살에 결국 어머니의 죽음과 맞닥뜨렸다. 어머니를 보내드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의 집에서 나온 그는 고아처럼 외롭게 살며 토목환경공학과를 졸업했고, 토목 관련 회사에서 일하며 착실하게 돈을 모아 시작한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자 지독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때가 서른다섯, 결혼 6년 차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괴로움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아이들 사진을 찍어 주려고 샀던 카메라를 들고 무작정 집을 나섰다. 살고 싶었다. 마음이 왜 이렇게 아프는지 알고 싶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셔터를 누르는 것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한 종갓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며 어린 시절 돌아가신 어머니가, 첫 장손이라며 손을 잡고 시체에 갔던 할아버지가 생각났다.

“어머니가 절절하게 보고 싶었어요. 불쑥 찾아가도 따뜻한 밥상 차려주며 위로해 줄 어머니가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눈물이 났어요.”

집에서 나올 핑계로 사진을 찍던 그는 2, 3년이 지



난 후 그동안 찍은 사진들을 꺼내 살펴보다가 공통점을 발견했다.

“어디서 찍은 사진이든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들어있음을 발견했어요. 절이든 바다든 성황당이든 장소만 바뀔 뿐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찍힌 사진을 보면서 혼자서 울었어요. 내가 어머니를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있었음을, 애써 눌렀던 내 마음을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나니 사진에 대한 놀라움, 두려움이 솟구쳤다. 자기의 진짜 속마음이 사진에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은가! 그의 삶을 관통하는 어머니, 그리고 죽음은 그가 살아가는 내내 풀어야 할 응어리였다. 이제부터 그 답을 사진으로 찾아야겠다고 결심한 그는 본격적으로 죽음을 만나러 나섰다. 유교, 불교, 무교 할 것 없이 장례 제의를 찾아다니면서 지독한 우울증도 차차 치유되기 시작했다. 죽음 앞에서 슬피 우는 슬한 사람들의 서러운 사연을 접하면서 이 세상에서 나만 아픈 게 아님을 알았고 비로소 ‘나’로부터 ‘우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

“죽으면 왜 돌아가셨다고 할까? 돌아가신다는 것

은 온 곳으로 다시 간다는 말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온 것일까?”

이 물음의 답이 『돌아올 귀(歸)』라는 그의 작업에 들어있다. 이 사진집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의와 제의에 관련된 사람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사진은 모호하고 불안정하다.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이나 옷자락, 비스듬히 사선으로 찍힌 인물, 흔들리는 나뭇잎 등에서 현실과 초현실을 넘나드는 영혼이 보이는 듯하다. 이 세상을 하직한 혼이 바람을 타고, 연기를 타고, 그들을 떠나보내는 제관의 손길을 지나 자기가 온 곳으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돌아가면 다시 또 올 수도 있음이니 이 또한 크게 서러워만 할 일은 아닌 걸까. 결국은 삶과 죽음, 죽음과 삶이 맞물려 있음을 터득하면서 11살 어린 소년의 마음에 싹트던 죽음의 공포,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했던 고통과 아픔에서 서서히 벗어날 수 있었다. 그의 표현을 빌자면 내 상처를 보다 보니 남의 상처를 보게 되고, 그것을 사진으로 터득하면서 사진이 자기를 살렸다는 것이다.



◁ <귀 03>,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2013 ©박찬호
△ <귀 04>, 전라북도 부안군, 2017 ©박찬호

기억은 작별하지 않는다

웰빙(well being)에서 웰다잉(well dying)으로 화두가 넘어간 지도 꽤 오래다.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두 단어는 이음동의어다. 잘 산다는 건 무엇일까. 박찬호 작가는 이 지점에서 ‘기억’이란 단어를 꺼낸다. 죽은 후에도 누군가 기억해 준다면 그는 타인의 기억 속에서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타인에게 무엇으로 기억되길 원하는가? 이는 다른 말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와 통한다. 살아있을 적 생전의 모습으로 기억할 테니까 좋은 기억으로 남고 싶다면 잘 살아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 그러므로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같은 말이 된다.

그런데 사진이야말로 가장 기억과 맞닿아있는 매체가 아닌가. 기록을 통하여 기억하고, 기억을 통하여 부재를 영원히 존재하게 하는 사진의 속성은 작별하지 않음을 구체화한다. 7살 아이의 사진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래서 늙고 사라졌어도 여전히 7살로 나이를 먹지 않는다. 박 작가는 인터뷰 도중에 유일한 엄마 사진이라며 어릴 적에 엄마와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사진 속에서 젊은 엄마는 여전히 곱고 7살쯤

된 박찬호 어린이는 엄마 곁에서 해맑다. 그는 말했다. “돌이켜보면 내 평생 가장 행복한 순간이 엄마와 함께 살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박찬호 작가는 첫 개인전으로 2016년에 온빛 다큐멘터리 기획전 《돌아올 ‘귀’》를 가졌다. 호평이 쏟아졌고 그해 싱가포르 국제사진페스티벌에서 우수 포트폴리오로 선정되었다. 그다음 해인 2017년엔 중국 대리 국제사진전에서 기획전시로 《The Return》을 선보였고 이어 2018년에는 『뉴욕 타임스』 ‘LENS’에 선정되어 인터뷰와 함께 작품이 실리는 등 해외에서도 주목 받았다.

인터뷰를 진행한 『뉴욕 타임스』의 사진부장이자 데스크 편집장이던 제임스 에스트린(James Estrin)은 “미스터 박, 난 정말 세계 곳곳을 다녔어요. 당신 사진 속의 문화를 똑같지는 않지만 아시아의 많은 곳에서 봤어요. 내가 당신을 인터뷰하고 알고 싶은 것은 당신 국가의 문화적 특별성이 아니라 당신이 겪어온 삶에서 사진으로 체득해 낸 통찰에 동의하고 진심으로 존중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한다. 독특한 전통문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는



〈신당 09〉, 전남 해안 함평군, 김정희 지무, 전남무형문화재
신안씻김굿 이수자, 보존회회장 ©박찬호



나가 중요하고 이미지 자체보다 생각의 독창성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제의 자체가 아니라 제의를 통해 ‘죽음’을 말하고자 한 것처럼 그는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자 했다. ‘신당’을 통해 우리의 전통 신앙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 서구 제국주의를 추궁한다. 그들은 우리의 무속신앙을 미신으로 치부하여 도외시켰고 일제강점기에는 2,000개에 달하던 성황당을 없애며 신사를 지어 참배를 강요했다. 그런 역사적 사실을 신당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

죽음과 화해

생일 전날이었다. 저녁 늦게 안동의 선소리꾼으로부터 내일 상여가 나간다는 연락을 받은 그는 다음날 가족들과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밤새 운전해서 안동에 갔다. 자동차 속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쏟아지는 햇살에 밖으로 나섰는데 곡소리가 들렸다. 생일 아침, 처음으로 듣는 소리가 누군가가 돌아가신 곡소리였다. 마침 만개한 꽃나무 아래로 상복을 입은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다. 반사적으로 카메라를 꺼내 셔터를 누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내 생일날 누군가는 죽었구나. 꽃은 피었는데 누군가는 죽는구나. 꽃은 떨어졌다고 울지 않는데 우리는 슬퍼하는구나. 죽고 또 태어나는 것, 피고 지는 것 모두 자연의 섭리구나.”

그는 사진을 찍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죽은 누군가의 사진을 찍는 것보다 생일날 어렵게 갖는 가족의 식사가 지금 살아있는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다. 죽음과 화해함과 동시에 바로 지금, 여기의 삶이 소중함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지금 새로운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간에 얻은 깨달음을 모두 정리하는 작업이 될 것 같다는데 이 작업으로써 샤머니즘에 대한 시리즈는 일단락될 수도 있고 새로운 작업으로 나아가는 브릿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금 하는 작업으로 내년에 개인전과 새로운 책도 계획하고 있어요. 내년 해외에서 국제적인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탈리아에서 백남준 선생과 함께한 전시는 박찬호 작가에게 큰 계기가 된 것 같다. 특히 샤머니즘 전

◁ 〈신당 01〉, 충남 황도 봉기도당, 故 김금화 만신,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서해안배연신굿 보유자 ©박찬호
△ 〈신당 02〉, 전남 뽕 할머니사당, 박미옥 당골,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진도씻김굿 전수조교 ©박찬호



시실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샤머니즘에 관한 전시를 별도로 확장하는 전시를 내년이나 내후년을 목표로 기획 중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탈리아에서 샤머니즘 전시가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다고 했다. 그리스 로마신화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에서 한국에도 우리의 신화가 있고 고유의 신앙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말했다. 작가에게 작업을 정리해서 발표한다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행위라고. 물론 그 씨앗이 언제 어느 곳에서 좋은 토양을 만나 싹을 틔울지,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므로 ‘미래의 과거’를 기록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박찬호 작가, 이제부터는 그가 거둔 아름다운 열매에 주목해도 좋을 것 같다.

박찬호는 대구 국제 사진비엔날레 특별전 《신념》(2021), FNK PHOTOGRAPHY AWARD 올해의 작가 수상자전 《신당》(2021), D.I.P.F(대리국제사진전) 기획전 《The Return》(2017) 등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외 10개 도시에서 《ciclo de proyecciones de corea》(2016)를 선보였다. 『신당』(2020) 『RETURN』(2022) 등을 출간했다. 2018년에는 『뉴욕 타임스』의 'LENS'에 선정됐다.

한국과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맞이하여 열린 토리노 동양미술관 기획전 《달에 사는 토끼》에서 박찬호 작가의 전시를 큐레이팅한 Kyoo Lee 교수를 인터뷰하며 전시의 의의와 내용, 박찬호 작품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사진 무당’ 박찬호에 대하여

인터뷰어 윤세영 『사진예술』 편집 주간

인터뷰이 Kyoo Lee 뉴욕시립대 철학교수

번역 문정희 한국미술연구소 부소장, 국립 타이난 예술대학교 부교수



《달에 사는 토끼》의 중요한 개념은 무엇인가. 교수님이 기획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역할은?

1996년 백남준이 목각 토끼가 TV 속 달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준 전시의 제목에서 유래한 《달에 사는 토끼 (Rabbit Inhabits the Moon)》은 이탈리아 토리노에 있는 동양미술관에서 개최한 것으로, 이 전시는 전자적으로 연결되고 융합된 '지구촌'에 대한 백남준의 예언적 비전을 되살리고 그의 정신과 유산을 기리는 의미다. 또한 이번 전시는 한국과 이탈리아의 주요 현대 예술가들의 작품을 함께 소개함으로써 두 나라 간의 역동적인 이문화(異文化) 간 대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스스로 이와 관련해 한국 샤머니즘과 미디어 아트의 연결성에 초점을 맞춰 큐레이션 하는데 힘을 쏟았다.

2015년부터 2016년에 걸쳐, 나는 KIAS(고등과학원)에서 시니어 펠로우로 활동하며 '시공간'에 관한 주간 융합 세미나를 이끌면서 한국에서 연구를 시작했고 이때, 백남준의 작품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의 비전 및 실천을 발견하게 되어 그 이후로 그의 작업과 유산, 특히 트랜스 유라시아(transEurasian)적 '테크노샤머니즘(technoshamanism)'이라는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부산, 케임브리지, 런던, 포츠담, 서울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서 강연을 진행해 왔다.

전시 중 교수님이 맡은 부문이 박찬호 작가의 샤머니즘 분야라고 알고 있는데 교수님이 생각하는 이번 전시의 구체적인 방향성은 무엇인가.

이번 전시에서 핵심 개념적 지표 중 하나는 단순히 존재론적 적이거나 세대 간의 연결만이 아니라, 문화적, 미디어적인 의미에서의 연결성이다. 나는 샤머니즘 관의 큐레이터로서, 비록 단 하나의 방위 뿐이지만 전시의 중심축인 이 공간에서, 박찬호 작가의 한국 샤머니즘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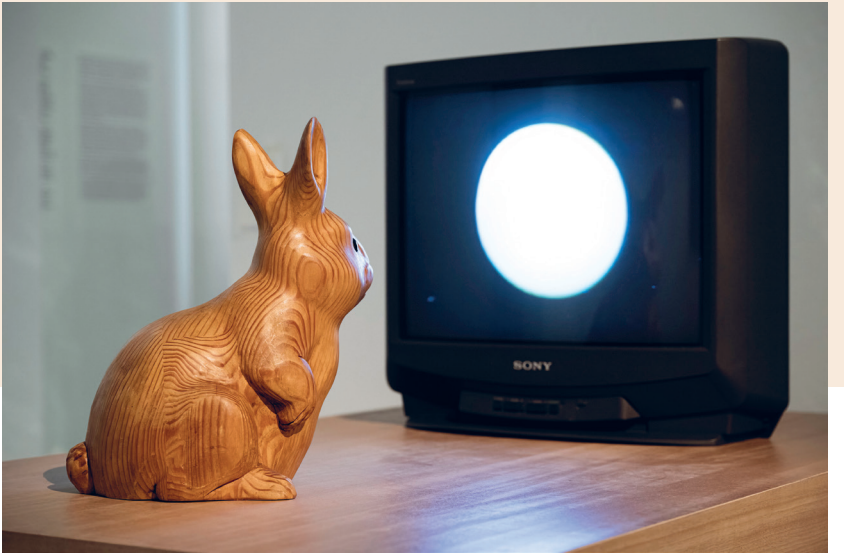
놀라운 작업을 그 비범한 현실의 더 넓고 깊은 차원, 즉 죽은 자와 산 자, 인간과 비인간, 영적인 것과 육체적 존재들이 함께 섞이고 공존하는 세계와 최대한 간결하게 '연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샤먼은 초연결자이자 '매개체'이며, 열정적인 퍼포먼스 예술가다. 따라서 박찬호 작가의 예술은 샤머니즘 의식과 의례에서 나타나는 예술적·영적 차원이며, 그러한 속에서 다소 초현실적인 생명력을 탁월하게 드러낸다.

한국의 샤머니즘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면?

한국 샤머니즘은 매우 역동적이다. 상호작용적이고, 축제적이며 치유적이다. 그곳에서는 '한(풀리지 않은 슬픔)'과 '흥(즉흥적인 표현력을 이끄는 활기찬 기쁨)'이 마법 같은 효과로 섞이며, 이는 백남준이 종종 한국 예술과 문화를 상징하는 전형적 메타포로서 영적으로 해석하던 한국의 비빔밥과도 비슷하다. 어둠과 밝음은 동시에 나타나며, 이는 박찬호 작가의 명암 대비가 강조된 사진이나 비디오 작품에서 자주 극적으로 표현된다.

샤머니즘을 연구하는 학자의 관점에서 박찬호 작가의 사진과 영상을 통하여 무엇을 느꼈나? 이번 전시에서 박찬호 작품의 어떤 면을 강조하여 보여주길 원했는지, 박찬호 작가가 이미지로 형상화한 샤머니즘의 세계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박찬호 작가가 찍은 사진 속 김금화 만신의 묘한 미소를 떠올려 보자. 그 미소에는 신비롭고도 섬세한 단순함이 깃들여 있으며, 이제는 꽤 상징적인 이미지가 되었다.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가 있다면, 현재 MAO에는 김금화가 있다. 이는 김금화 만신과 '사진 무당'으로 알려진 박찬호 덕분이다. 신비로움과 장난스러움이 공존하는 한국의 샤머니즘은 김금화의 퍼포먼스(굿)와 박찬호의 생동감 넘치는 사진 속 다른 인물들을 통해 잘 드러



백남준 선생의 〈달에 사는 토끼〉. 이 작품에서 전시 제목을 따왔다.

난다. 이는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양자적 현실을 구현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주요 작가인 백남준 작가의 작품과 박찬호 작가의 작품에서 어떤 동질성을 발견했나. 두 전시의 연결고리를 무엇으로 보셨는지 궁금하다.

백남준과 박찬호는 철학적 시성(philopoetic)을 지닌 예술가들이다. 적어도 그들의 작업에서 드러나는 철학적으로 빚어진 시적 감각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큰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그들의 작품 속에서는 삶과 죽음, 트라우마와 희망, 문화적 특수성과 디아스포라적 확장성 사이에 존재하는, 겉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지속되는 관계의 연결고리가 탐구 된다. 이처럼 본질적으로 이질적인 요소들이 함께 얹혀 조화로우음을 이루며, 삶 속의 죽음과 죽음 속의 삶이라는 가능성의 무대를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박찬호가 촬영한 조부원 박수의 사진은 천장에 매달린 김영철 심방의 손길로 탄생한 '영적 몸체'인 기메(굿이 벌어지는 제청에 설치되는 다양한 종이 조각 - 역자주)로 신당을 배경으로 한다(62쪽). 이 사진은 초월과 춤이 만나는 순간, 그리고 의식이 몸짓으로 변주되는 과정을 통해 작가의 탁월한 구성 감각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박찬호 작가의 작품과 사진 및 영상작업에 대한 교수님의 평을 부탁한다.

사진의 시간성 속에서 삶은 사후세계의 한 부분으로 자리한다. 박찬호의 시각적 작업은 이중적 의미의 '귀(鬼와

歸)'를 공명하는 문법으로 삼아, 이 세계와 초월적 세계가 공존하는 독특한 연결성을 강조한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기록적 관심을 통해, 그 속에서 드러나는 몇몇 문화적으로 특수한 세부 사항들이 보편적으로 깊은 울림을 전한다.

박찬호 작가 외에 여럿의 작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한국 작가들에 대한 교수님의 평가는? 작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한국의 멀티미디어 예술가들의 작품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정말 멋진 경험이었다. 예를 들어, 박지하의 〈달에서 들린 소리, 파트 2〉(2024)와 안규철의 설치 작품 〈녹턴 No. 230 / 대위법〉(2013~2020)은 전시의 전체와 가능성을 음악적으로 정교하고 섬세하게 표현한 것이다. 또한, 박선민의 매혹적이고 알레고리적인 〈버섯의 건축〉(2019)은 우리를 삶의 미시적 세계로 이끈다. 더 많은 예술과 예술가가 더욱 초국적으로 이동하며 다양한 문화 간, 학제 간 접촉 지대로 진입하기를 바란다.

Kyoo Lee(아규)는 CUNY 뉴욕시립대학교(철학, 젠더학, 정의학) 종신 교수이며 예술비평가와 작가로도 활약하고 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CUNY 대학원, 서울대학교, 연변대학교 등에서 강의했다. 저서로 『Reading Descartes Otherwise, Writing Entanglish』가 있으며 대륙을 넘나드는 페미니즘 저널인 『philoSOPHIA』의 공동 편집자다. 또한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외 여러 매체의 편집위원을 맡고 있으며 샤머니즘 학술 연구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